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김 탁 환

1. 서론

<쌍천기봉>은 낙선재본 소설¹⁾이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해제와 개괄적인 검토²⁾, 국적문제에 대한 고찰³⁾, 그리고 <니씨세대록>과의 연작문제에 대한 검토⁴⁾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논의들을 통해 <쌍천기봉>은 <니씨세대록>과 연작이며, 작품에 나타나는 속담이나 다양한 제도들—특히 과거제도의 차이, 등문고 제도—이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임을 밝혀 국내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쌍천기봉>에 대한 유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김기동은 이 작품을 ‘가문소설’⁵⁾에 포함시켰으며, 양혜란은 ‘기봉류 소설’에 포함시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양

-
- 1) <쌍천기봉>은 18권 18책으로 된 장서각본과 19권 19책으로 된 국립도서관본이 있다. 본고에서는 1979년에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에서 영인간행한 장서각본을 텍스트로 한다.
 - 2) 김기동, 쌍천기봉 해제, 현대문학 18권 9호, 1972.
김진세, 쌍천기봉 해제, 국학자료 13, 1974.
 - 3) 김진세, 쌍천기봉 연구, 관악어문연구 1, 1976.
 - 4) 김진세, 위의 논문.
김기동, 쌍천기봉과 이씨세대록—이조연작소설 연구(3)—김성배박사회갑 기념논문집, 1977.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5)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p.703 참조.

혜란은 기봉류소설을 신물점지형, 지인지감형, 애정성취형으로 나누고, <쌍천기봉>을 신물점지형 중에서 非天降型에 포함시켰다⁶⁾. 조동일은 <쌍천기봉>을 기봉류소설로 보면서 위장된 중세적 질서의 이면을 파헤친 작품이라고 문학사적 가치를 평하였다⁷⁾.

이상의 研究史에서 보듯이 <쌍천기봉>에 대한 연구는 유형분류를 거쳐 소설사적 평가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작품의 창작방법을 검토하고 특징적인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 글은 <쌍천기봉>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의 일환으로, 우선 <쌍천기봉>의 창작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쌍천기봉>의 창작층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창작방법'이란 소설가가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소설가의 사유를 통하여 현실적인 소설 작품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설의 생성(혹은 형성) 과정을 지배하는 일관된 소설가의 창작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를 연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소설가의 삶이나 창작의도를 소설 작품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고전소설 연구에서도 이러한 작업은 일정정도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⁸⁾.

그런데 <쌍천기봉>을 포함한 상당수의 고전소설은 창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소설가의 삶이나 창작의도를 소설과 비교하면서, 그 생성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설 작품으로부터 그 소설의 창작방법을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즉 고전소설을 검토하면서 그 소설 속에 포함된 여러가지 창작방법의 흔적들을 찾아내어 소설가의 창작방법을 밝히고, 창작층을 추론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은 소설의 창작층을 추론하는 작업은 주로 작품내적 구조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⁹⁾. 이 글은 그러한 소설의 본격적인 구

6) 양혜란, 기봉류소설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pp. 14-54. 참조.

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 496.

8) 그동안 작가론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많은 작업이 이에 근거한다. 특히 그동안의 작가론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문제제기는, 소재영, 고소설의 작가문제, 다국 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1988.에서 이루어졌다.

9)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조분석이 이루어지기 前단계에서, 그 소설이 생산되는 과정을 밝히려 한다. 이는 <쌍천기봉>이 당대의 생산관계—혹은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앞서 문학이라는 특정한 생산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쌍천기봉>에 내재한 창작방법의 검토는 <쌍천기봉>의 창작에 있어서, <쌍천기봉>이 창작되기 직전까지 고전소설이 성취한 여러가지 소설 기법들이 <쌍천기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쌍천기봉> 내에서 추출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선 1) <쌍천기봉>에게 영향을 준 선행 텍스트의 추출과 2) 선행 텍스트가 <쌍천기봉>의 창작과정에서 수용되는 양상의 검토로 전개될 수 있다. 이때, 선행 텍스트는 <쌍천기봉>의 창작에 영향을 준 것이면, 그 선행 텍스트가 소설이든지 소설이 아닌 그밖의 장르—주로 歷史—이든지 구분하지 않으며, 또 그 소설이 국내소설이든지 중국소설이든지 구분하지 않겠다. 문제는 그러한 선행 텍스트들이 어떠한 ‘창작방법’을 통해 어떻게 <쌍천기봉>으로 수용되고 있는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쌍천기봉>에서 드러나는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리고,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明史가 <쌍천기봉> 내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어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으로는 <쌍천기봉>의 국적문제와 연관문제에서 계속 거론된 바 있는 소설의 末尾를 ‘소설 속에 제시된 그 소설의 창작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쌍천기봉>의 작가가 창작에 임하는 자세의 한 단면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쌍천기봉>의 창작방법을 통해 본 소설의 창작층과 <쌍천기봉>의 소설사적 의의를 추론하도록 하겠다.

_____, 조선조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198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2. <삼국지연의>의 영향 : 인물의 성격과 행위

김태준에 의해 <삼국지연의>가 고전소설에 미친 영향이 언급¹⁰⁾된 이래, <삼국지연의>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의 성립과정을 살핀 것¹¹⁾과 이 작품이 한국에 유입된 시기를 확정짓는 논의¹²⁾를 바탕으로 하여, <삼국지연의>의 번역을 통해본 수용의식¹³⁾, <삼국지연의>와 고전소설들의 영향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업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삼국지연의>와 고전소설과의 영향관계는 <삼국지연의>가 가지는 많은 군담이 우리 소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군담소설'로 분류된 비교적 짧은 분량의 방각본소설과의 비교, 그리고 김만중의 <삼국지연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운몽에 드러나는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살피는 것¹⁴⁾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때의 비교는 지명이나 공간적 배경의 유사성, 인물들의 겉모습의 유사성, 군담에서 드러나는 병법의 유사성 등에 그친다.

-
- 10) 김태준, 조선소설사, 박희병교주, 한길사, 1990, pp.92-95. 김태준은 <삼국지연의>가 재창작되거나 영향을 준 고전소설로 <화용도>, <산양대전>, <적벽대전>, <유충렬전>, <강유실기>, <육인기>, <위왕별전>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영향관계가 <금오신화>에 미친 <전등신화>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11) 이혜순, 삼국지연의의 성립과정과 인물성격고,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 12) 이경선, 삼국지연의의 한국전래와 정착, 삼국지연의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지사, 1976.
류탁일, 15.6세기 중국소설의 한국전입과 수용, 어문교육논집 10, 부산대, 1988.
류탁일은 <삼국지연의>의 한국 전래를 1522년부터 1569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 13) 오수미, 삼국지연의의 演變 및 비교문학적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 14) 이상익, 군담소설과 삼국지연의,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3.
이경선, 한국의 군담소설 및 구운몽, 옥루몽과 삼국지연의의 비교, 삼국지연의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지사. 1976.

즉 간접적으로 <삼국지연의>가 군담소설을 비롯한 몇몇 소설들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될 수 있지만, 조선후기의 소설들이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연의 소설의 영향 속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구체적인 명증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쌍천기봉>에서도 군담소설에서 보이는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을 빗대어 말하거나 군담이나 병법의 유사성은 무수히 나온다¹⁵⁾. 그런데, <쌍천기봉>에서 중요한 점은 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 양상이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에 의지하여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쌍천기봉>에서 <삼국지연의>의 인물들과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일은 태수 일몽을 얻으니...(중략)...상대 우으시고 즉시 좌우를 명하사 뉴리 중의 주하쥬를 브어 먹이니 공이 먹기를 못하고 흡신하야 췌드르니 주괴 몸이 전세의 **빅을던군**으로서 상대 압히셔 월궁상아를 눈주어 회홍하니 상대 노하사나 던군을 극히 사랑하사니더라 하계로 노리를 주더하더니 모든 선관이 두토아 덕거홍적 슬허하던 일이 눈 알때 버렸는듯 하더라...(중략)...이윽고 한사룡이 눈건을 쓰고 학창의물 붓히고 드러와 부복왈 신랑이 선쥬를 만나 공업을 못 닐우고 한 목숨이 구련의 도라오니 한이 심곡의 밋히고 눈물이 가슴의 어롱더 다시 인세의 나가 태평을 누리 평칭 혼을 잊고져 하던 상대 허티 아니샤 금의 구박년이 거의 되엇거늘 신을 브르시미 엇디니잇고 옥황이 위로왈 경의 직조로 한설을 엇디 회복다 못하리오마는 텃명 사마시의게 소연하매 경을 불러 도라오매 경의 원이 김호나 그 때를 기다리니 한티 말고 이제 인간의 나가 출장일상하야 무궁한 영화를 누리라 **꽃뿔이** 티회하야 치키사래하매 남두성이 조너를 덤디하니 오조이네라 홀연 일인이 너드라 신이 전일 승상의 사랑하미 천조그티 하사 뒤스로써 맛디시던 신이 미하야 무춤 중의 술위 알때 췌니 한 마음은 투항하야 타일 다시 회복고져 하미러니 무춤 대신 그릇되야 녀시 구련의 도라오나 혼조

15)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낭인이 유관당의 도원결의를 효측하여 형대되느니’, 권지팔
 ‘금일 요녀의 형상이 가장 통희하고 급사의 의심이 김호니 오히려 머른죽고이한 익경이 미추리니 셔푸 관우의 하직 아니코 가를 효측하리라’, 권지십일
 ‘형이 반년지니에 추창고뵈 역적을 다 물니치니 공덕이 가히 와룡의 지지 아니하고 쾌하미 오장원에 죽으물 설치한지라’, 권지십

각 붓그러오른 업디 아니하니 후세의 승상 아들이 되어 종효후어디이다 상
 데 용운후시니 이는 턴슈인 강원이라 또 일인이 나와 고포티 니 주소로
 큰 공을 일우고 반심이 업더니 양의로 인후야 반후매 승상이 금당계로 날
 을 풍시 칼 싹히 혼익이 되게 하니 원흔이 양의게 척골흔디라 원컨디 승상
 추지 되야 종효후고 양의의 원슈를 갑하디이다 상데 고개 조으시니 이는
위연이라 또 일인이 출말 상시 승상 은혜를 만히 넘어시디 그뜻후야 가
 덩을 일허 군법을 도망티 못후니 붓그러오미 이젧그디 잇는디라 원컨디 승
 상 데삼지되여 종효후고 도적을 쳐 원을 프리디이다 상데 조추시니 이는
마속이라 또 두 사람이 나와 고포티 우리 냥인이 승상 은혜를 만히 넘어
 시니 승상의 우지되여 은혜를 갑하디이다 추는 왕평 마대이라 상데 허하
 시다 북두성이 주하디 텨상 일을 속인을 알오미 어려오니 칩을 쓰어두어
 타일 선악보용이 명명래 후사이다 상데 올라후시니 또 후 선관이 붓술 잡
아 칙 후 권을 빼 공을 주니 상데 고포사티 이 들의 비밀후 말이 이시니 네
보디 말고 고초와 둔 죽 타일 불 사람이 이시리라 공이 비사후고 인후야
물러나가다가 썩 두르니 남가 일몸이라 크게 이상이 너겨 니러안즈니 스매로
셔 칙이 느려지노디라¹⁶⁾ (밑줄은 인용자)

위의 내용은 니현의 아내 뉴씨가 14삭이 지나도록 출산을 하지 못하던
 중에 니현이 꾸는 꿈이다. 이 꿈에서 니현은 자신이 천상의 ‘뿔울딘군’이었음
 을 알게되고 아들로 전생의 제갈공명을 얻게 되고, 다섯명의 손자와 두명
 의 손녀를 얻게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이 다섯명의 손자는 각각 전생
 의 강유, 위연, 마속, 왕평, 마대이다. 그리고 이 일을 기록한 책 한권을 니
 현은 받게 되는데 그 책을 꿈 밖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잘 간수하게 된다.
 <쌍천기봉>의 말미에 가서는 니관성(제갈공명의 후신)이 이 책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위에 열거된 <삼국지연의>의 인물들 외에도 여러 인
 물들이 더 나온다. 그 <삼국지연의>의 인물로 드러나는 그들의 전생과
 <쌍천기봉> 속에서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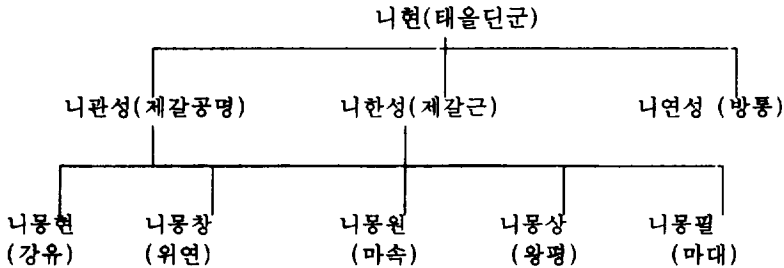
제갈근 : 니현의 둘째 아들 니한성

16) 쌍천기봉 권지이.

17) 쌍천기봉 권지십팔. 약 7페이지에 걸쳐 전생과 후생의 인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인용은 다음으로 미룬다. 단 이러한 내용을 니관성이
 읊는 것을 뉴문한이 들어서 옮겨적었다는 내용은 소설 말미에 적힌 소
 설 속의 작자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므로 지적해둔다.

- 방통 : 니현의 세째 아들 니연성
- 조조 : 오왕 유창
- 조삼의 딸(위연이 겁칙한 여자) : 니몽창(위연)의 처 소씨
- 양의 : 오왕의 부하장군 유빈
- 스마의 : 오국태자

즉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제갈공명을 비롯한 여섯명의 이름만 밝혀 놓았다가 소설의 결말부에서는 <쌍천기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나머지 사람들의 전생도 역시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니현의 꿈과 니관성이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니씨 가문의 주요인물들의 전생과 현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니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이 니씨 가문 남자들의 전생이다. 이러한 사실을 니현은 알고 있으나,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므로 니씨 가문의 남자들은 니관성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전생을 모른채 현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니씨 가문의 남자들의 성격이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그들의 전생에 해당하는 <삼국지연의> 속의 인물들의 성격이나 행위에 의해서인 점은 주목을 요한다. 즉 니관성(공명), 니한성(제갈근), 니몽현(강유)은 모두 <삼국지연의>에서 지략가이므로 성격이 차분하고, 천문지리에 밝은 유학자의 면모를 보임에 반하여, 니연성(방통)과 니몽창(위연)은 <삼국지연의>에서의 기이한 행적과 과격한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능력은 있으나 자주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인다. 특히 니연성과 니몽창은 젊은 시절

호색가로서 미인과 통정하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니씨 가문에서 가장 마음이 잘맞는 숙질간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니현의 꿈에서 제시되는 공명을 비롯한 여섯명의 인물과 말미에 제시된 제갈근, 방통 등의 인물은 <삼국지연의>에서 묘사되는 성격 그대로 자신의 성격을 부여받고 <쌍천기봉>에서 니씨 가문의 인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삼국지연의>로부터 특히 작중인물의 성격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쌍천기봉>의 작자가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을 빌려오고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삼국지연의>의 인물과 <쌍천기봉>의 인물 간의 명백한 일대일 대응관계는 오직 작품 전반부의 니현의 꿈과 작품 말미의 니관성이 발견하는 책에서만 언급될 뿐이지, <쌍천기봉>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삼국지연의>는 소설의 배후로 가라앉고 니씨 가문의 행적만이 전면에서 부각된다. 즉 독자는 니현의 꿈에서 언급된 <삼국지연의> 속의 인물들의 행적과 성격을 기억하면서 니씨 가문의 남자들의 삶을 비교하며 소설을 읽어도 되지만, 설사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니씨 가문의 이야기로 <쌍천기봉>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쌍천기봉>의 작자가 <삼국지연의>의 사건과 인물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를 명나라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니씨 가문의 사건으로 형상화하면서, 니씨 가문의 인물들이 전생애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리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을 보자.

승상(니관성)이 촉을 붉히고 쇼부(니연성)와 상서(니몽창)를 띠하여 병법승
 궐을 니를 시 쇼부다려 슈전을 홀 기묘지략을 가르치고 상서다려 녹전홀
 요칙을 종야도록 니를기를 못추미 무령익(니한성)이 웃고 왈 석일 제갈공
 명이 날오되 강풍의 슈전은 슈낭이 잘하고 녹전은 노조경이 잘한다 후더니
 금세의 슈공근과 노조경이 잇고 슈녹전 승궐를 달통하는 형장이 거시니 공
 명 불워 아닐지라 승상이 벼개를 놓히시고 궐평을 누리실소이다 승상이 좁
 쇼알 저른 우희들이 엇지 노슈과 슈유의 지조를 당하며 우희이 엇지 제갈
 람의 지조를 당후리오¹⁸⁾(밑줄과 첨언은 인용자)

위 인용은 정통 3년(1438년) 장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니연성이 수군도독이 되고 니몽창이 육군도독이 되어 떠나기 전날 밤 니관성, 니한성, 니연성, 니몽창이 모여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니관성이 일일이 병법을 가르치니, 니한성이 니연성을 주유, 니몽창을 노숙, 니관성을 제갈공명에게 빗대니 니관성은 그 빗댄이 지나치다고 이른다. 이러한 언급은 이 네 인물이 모두 <삼국지연의>의 인물들과 관계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소설 속에서 그 인물들이 <삼국지연의>의 인물들과도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즉 <쌍천기봉>의 창작자는 <삼국지연의>에 대해 끊임없이 자의식을 가지면서 창작에 임하고 있는데, 이 자의식은 <삼국지연의>에서 차용해온 인물들의 성격에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삼국지연의>와의 유사성을 추구하는 것과 아울러 <삼국지연의>와는 다른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니씨 가문의 전생을 알고는 있으나 침묵하는 니현,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씨가문의 전생을 알고 작품을 읽어나가는 독자¹⁸⁾와, 이에 반해서 전혀 자신들의 전생을 모르며 삶을 살아가는 니씨 가문의 니관성 형제와 니몽현 형제의 대비적인 삶이 앞/모름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니관성 3형제, 니몽현 5형제도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그 인물들이 자신의 전생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리감이 대비적 구조 속에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쌍천기봉>의 인물들이 ‘책’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생의 삶을 알게 되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소설의 전반부와 결말부에서는 ‘책’이라는 형식을 통해 <쌍천기봉>과 <삼국지연의>의 친연성이 선명히 드러나며, 이 ‘책’이 발견되지 않고 망각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쌍천기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설 ‘책’을 구성하게 된다.

<쌍천기봉>에서 군담은 소설의 결말부에 나타나는 오왕과의 전투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쌍천기봉>에 드러나는 다른 전쟁의 과정-한왕의

18) 쌍천기봉 권지십.

19) 독자의 앞 자체도 부분적이다. 독자는 처음에는 일곱명의 전생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소설의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나머지 사람들의 전생을 알아차리게 된다.

반란, 장청의 반란, 정통황제의 구출과 복위—은 니관성의 지략에 의한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기록만이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전쟁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왕과의 군담은 아주 상세히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오왕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모두 니관성을 비롯한 그의 다섯 아들의 전생인 <삼국지연의> 속에서 원수 지간이었기 때문이며, 특히 제갈공명과 자웅을 겨룬 조조, 사마의 등이 오왕과 오국태자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오왕과의 전투는 니관성과 그의 다섯 아들이 모두 출전한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니몽창이 주빈과의 전투에서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대전에서 행한 황개의 골육계를 사용함을 통해서이다. 이 부분을 순차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니몽창, 황개의 골육계를 쓰고자 하니 장군 순수환이 자칭함.
- 2) 순수환, 능환에게 자신이 황개의 골육계를 행함을 이르고 감택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주빈의 진으로 보냄.
- 3) 순수환, 주빈에게 거짓 항복하여, 주빈의 장군 중에서 훌륭한 장수인 주돈과 최강을 모함하여 내치게 함.
- 4) 니몽창, 단을 쌓고 동남풍이 서북풍으로 바뀌기를 기원함.
- 5) 니몽창, 주빈의 선단에 불을 질러 주빈을 사로 잡음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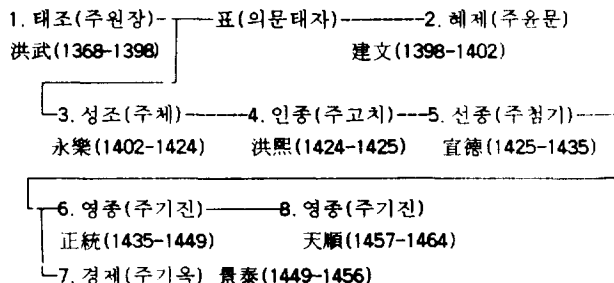
니몽창과 주빈의 전투는 전생의 위연과 양의의 원한관계가 투영되어 자못 격렬하다. 그런데 <쌍천기봉>의 창작자는 이들의 싸움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를 임의로 차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즉 제갈량이 죽자 전권을 장악하고 제갈량의 지시대로 반역을 꾀한 위연을 죽인 인물이 양의인데, <쌍천기봉>에서는 조조의 후신인 오국의 장수 주빈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니몽창은 전생의 위연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연의>에서 제갈공명이 행한 바 있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도술을 직접 행한다. 순수환과 능환의 역할을 하는 황개와 감택은 모두 오나라의 장수임에도 여기서는 니몽창(위연)의 막하 장군으로 나온다. 이러한 <삼국지연의>와 <쌍천기봉>의 인물들의 국적과 행동의 불

20) 쌍천기봉 권지십육.

일치는 위연과 양의의 대결인 촉나라의 내분을, 위나라와 촉나라(오나라를 포함한)가 대결한 적벽대전에 빗대어 <쌍천기봉>에서는 니몽창과 쥬빈의 대결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군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삼국지연의>에 대한 차용과 재구성은 앞서 제시한 니씨 가문 형제들의 삶과 전생의 인물들의 삶의 차용과 재구성에 그대로 조용된다. <쌍천기봉>의 작가는 <삼국지연의>의 여러 인물과 사건들에 익숙해 있으면서 <쌍천기봉>을 쓰는 과정에서 이를 나름대로 비교, 분석,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 작업은 <쌍천기봉>의 여러 인물들의 성격을 <삼국지연의>에서 차용해 오면서도 그들의 관계를 <쌍천기봉>의 소설 내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3. 明史의 수용 : 배경, 사건, 인물의 대비

상당수의 고전소설은 공간적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역시 중국의 역대 왕조 중의 특정한 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 배경 설정은 대부분의 군담소설이 그렇듯이 완전히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몇몇 소설은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설 속에 수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낙천등운> 등은 모두 명나라 가정(嘉靖)년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소설 속의 적대적 인물로 가정 년간의 간신인 엄숭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 소설의 작가들이 나름대로 明史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소설에 수용했음을 뜻한다. <쌍천기봉>은 明의 태조에서부터 영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니씨 가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쌍천기봉>의 작가가 어느 정도 明史를 알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인 明 왕조의 변천사와 각 임금의 제위 기간과 연호를 <쌍천기봉>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明王朝의 가계를 도표로 제시하고, <쌍천기봉>에 드러나는 明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추시는 건문 원년이라 신군이 즉위하시니라²¹⁾
 나) 연왕이 대위의 즉하고 기원을 영낙이라 하고 턴하에 반사하니²²⁾
 다) (성조가) 봉하시니 군신이 태조를 붓드러 즉위하니 이곳 인종황제라²³⁾
 라) 턴해 불행하야 인종황제 봉하시니 님봉의 명승상 형태와 니태스를 명 초하사 유도왈 답이 불행하야 선대삼년을 못디 못후고 이제 죽고 태지 나히 어리니 경등은 보견하야 답의 뜻을 저바라디 말나²⁴⁾
 마) 문위 태조를 붓드러 즉위하시니 기원을 선덕이라 하다²⁵⁾
 바) 턴히 불행하여 상이 질병이 미류하사 (중략) 봉하시니 진위 십년이라²⁶⁾
 사) 문무계신이 태조를 붓드러 위의 즉하니 이 정통황제라²⁷⁾
 자) 잇디 국개 크게 그릇되여 황제 복벌 하시다가 오랑개의게 빠혀 도라오 지 못하시니 대의 아우 경태 즉위하야 정사를 다스리므로²⁸⁾
 차) 상(명통황제)이 답지 아니시고 승상으로 더부러 대궐노 드르샤 종묘의 비알하시고 즉위하사 개원을 천순이라 하시고²⁹⁾

明史와 <쌍천기봉>에서 나타나는 임금의 즉위순서와 통치기간, 연호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첫째, 즉위 순서를 살펴보면 혜제로부터 영종이 다

- 21) 쌍천기봉 권지일.
 22) 쌍천기봉 권지이.
 23) 쌍천기봉 권지사.
 24) 쌍천기봉 권지사.
 25) 쌍천기봉 권지사.
 26) 쌍천기봉 권지십.
 27) 쌍천기봉 권지십.
 28) 쌍천기봉 권지십오.
 29) 쌍천기봉 권지십오.

시 복위되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둘째, 각 임금의 통치기간을 살펴보면, 1) 즉위 1년만에 죽은 인종은 ‘선대 삼년을 못다 못하고’(라)에서 보듯이 성조가 죽은지 삼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죽음을 한탄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며, 2) 10년(1425-1435)의 재위기간을 가진 선종도 ‘칙위 십년’(바) 만에 봉한 것으로 나오므로 일치한다. 세째 연호를 비교해보면, 혜제의 연호인 건문(가), 성조의 연호인 영락(나), 선종의 연호인 선덕(마), 영종의 연호인 정통(사)과 천순(차), 그리고 경제의 연호인 경태(자) 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쌍천기봉>의 작가는 明 임금의 즉위순서와 통치기간 그리고 연호의 사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소설 속에 적용시킨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明에서 일어났던 왕권쟁취를 둘러싼 사건과 이 사건에 개입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쌍천기봉>에서 찾아서 비교해보도록 한다. <쌍천기봉>에서는 왕권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으로 1) 연왕이 주윤문을 빼앗기고 성조가 되는 정난(靖難)의 변, 2) 선종이 숙부인 한왕 주고희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 3) 영종이 야선(也善)을 징벌하기 위해 친정하였다가 오이라트군에게 포로로 잡힌 토목(土木)의 변과 다시 경제를 몰리치고 복위하는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정난의 변을 보자. 역사적으로 정난의 변은 혜제가 주원장의 대를 이어 보위에 오르자 삭번(削藩)을 주장하던 제태, 황자징 등을 증용하여, 일년 남짓 세력이 약한 다섯 개의 번왕을 삭감, 폐지하는데 반발하여 그의 황숙 연왕 주체가 군사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가리킨다³⁰⁾. <쌍천기봉>에서 이 사건은 제태, 황자징이 그대로 소설 속에 등장하여 연왕과 대립한다. 이 부분의 순차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문제, 제태, 황자징의 뜻을 따라 번왕을 삭감 폐지하기 시작하다.
- 2) 연왕, 니현에게 피할 계교를 물으니 증풍 걸린 것처럼 하라고 니현이 알려준다. 이로 인해 니현은 산둥 낙안주로 귀양을 떠나다.
- 3) 연왕, 니현에게 고치(후의 인종)와 고구(후의 한왕)를 보내 위로하니, 니현 고치의 덕스러움에 놀라고 고구의 광포함을 걱정함.
- 4) 연왕, 제태 황자징의 명으로 경사로 압송되는 진씨(니현의 母)를 구하다.

30) 중국통사, 청년사, 1976, pp. 622-624. 참조.

- 5) 니현, 진씨의 설득으로 벼슬길에 오르다.
- 6) 연왕이 천자가 되니 개원을 영락이라 하다.³¹⁾

이상을 보면 <쌍천기봉>의 창작자는 연왕과 제태 황자징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을 파악하여, 이를 소설의 주인공인 니현과 관련시켜 형상화하였다.

다음으로 한왕의 반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왕 주고구는 인종 주고치의 동생으로 선종이 즉위하자 그해 8월(1426년)에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선종은 3양(양사기, 양영, 양부)의 진언을 따라 즉시 친정하여 한왕을 사로잡고 난을 평정한다³²⁾. <쌍천기봉>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는 일치³³⁾하지만, 그 난을 평정하는 중요한 인물로 3양이 아니라 니관성의 지휘에 따르는 핑정낭과 니한성이 부각되고 있다. 3양 중의 하나인 양사기는 <쌍천기봉> 속에서는 딱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성조가 태자인 주고치(인종)에게 남경으로 가기를 명하고 ‘태혹스 양사기를 명하여 태즈를 미셔 핑허라³⁴⁾’고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쌍천기봉>의 작자는 3양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왕의 난을 평정하는 데는 니현의 아들 니관성에게 그 공을 모두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해당 부분의 순차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왕, 선덕 원년에 반란을 일으키다.
- 2) 니관성, 선종에게 청하여 핑정낭을 육군도독에 니한성을 수군도독에 임명하여 난을 평정하게 하다.
- 3) 니한성과 핑정낭이 한왕의 난을 진압하고 한왕을 생포하다³⁵⁾

31) 쌍천기봉 권지이.

32) 중국통사, p. 635.

33) ‘한왕 고귀 불례의 뜻을 품어 군수를 조련하고 군냥을 모호더니 텃도의 두인군(성조와 인종)이 년후야 봉허시고 유군이 즉위하시물 듯고 크게 깃거(중략) 드티여 군수를 발허여 디방을 범하니’ 쌍천기봉 권지오. <쌍천기봉>에서 한왕은 선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난을 일으킨 것으로 나오므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

34) 쌍천기봉 권지삼.

35) 쌍천기봉 권지오.

마지막으로, 토목의 변은 1448년 야선이 이끄는 오이라트군이 침공하자, 영종이 환관 왕진의 말을 따라 친정했다가 토목에서 포로가 되어 1여년 동안을 갖혀 지내다 1450년 다시 북경으로 돌아온 사건을 지칭한다. 이때 明은 이미 영종의 아우 주기옥을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시킨 후이다. 영종은 1457년 경제(주기옥)가 병이 들자 조길상, 니현 등의 도움으로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된다³⁶⁾. <쌍천기봉>에서도 영종이 토목의 변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왕진의 잘못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제 던지 왕진의 말을 드루시고 야선을 치시다가 경영군 이십만을 함물하고 왕진이 또한 죽으니 야선이 주가를 잡아 이곳에 가도고³⁷⁾(밑줄은 인용자)

그런데 영종이 오이라트에서 풀려난 시기와 다시 천자에 복귀되는 과정은 역사와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다.

가) 어시에 정통황제 복새에 가선지 오륙년에 니르나 경태 마주를 뜻이 망연하고
 나) 니관성이 요령에 있더면 이러후리오 후시며 간장을 킷와 여류흔 세월을 보니연지 팔년이 되니³⁸⁾(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에서 보듯이 영종은 1450년에 明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쌍천기봉>에서는 포로로 팔년 간(1449-1456)을 잡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영종의 복권도 북경 내부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니관성이 영종을 오이라트에서 구해내고 곧바로 영종과 함께 북경으로 돌아와 경태를 쳐서 천자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되어 있다³⁹⁾.

36) 중국통사, pp. 635-639. 중국통사강요, 이론과 실천사, pp. 285-287 참조.

37) 쌍천기봉 권지십오.

38) 쌍천기봉 권지십오.

39) 순차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쌍천기봉 권지십오)

- 1) 니관성, 천하를 돌며 영종을 구출할 영웅호걸을 모으다.
- 2) 니몽창, 니관성의 의병 일으킴을 영종에게 알리기 위해 오이라트에서 가서 영종을 만나다.
- 3) 니관성, 의병을 일으켜 영종을 구하다.

이상에서 역사적 사건이 <쌍천기봉>에서는 어떻게 소설화 되어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폈다. <쌍천기봉>의 작자는 明史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그대로 소설 속으로 가져오기도 하고(정난의 변), 사건을 주동했던 인물을 축소시키면서 소설 속의 주인공 가문의 인물을 부각시키기도 하며(한왕의 반란), 역사적 사실 자체를 고쳐서 니씨 가문의 영웅성을 더욱 극대화시켜 놓기도 한다(토목의 변). 이러한 사실은 <쌍천기봉>의 작자가 明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발발 원인과 관련 인물들을 모두 자세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쌍천기봉>으로 끌어오면서 작품 구조에 맞게 나름대로 재구성했음을 드러낸다.⁴⁰⁾

4) 니관성, 영종과 함께 북경으로 쳐들어가니 빅관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다

5) 영종, 다시 천자에 오르고 경태는 자살하다.

- 40) 니씨 가문을 처음 일으킨 니현과 <明史>에 실제로 드러나는 니현의 행적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明史> 券一百七十六, 列傳第六十四, 경인문화사편, 1977. 과 <쌍천기봉>에 산재한 니현의 삶을 비교하여 표를 만들었다)

	<明史>	<쌍천기봉>
생몰연대	1407년-1466년	1382년-1444년
과거급제	선덕 8년(1435년)	1397년
주요벼슬	천순1년(1457년) 한림학사 문연각학사 성화1년(1465년) 화개전대학사	1405년 태조태수 문연각대학사

위의 표를 통해 실제 인물 니현과 소설 속의 인물 니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明史>에서 니현은 성조 5년에 태어나서 헌종 2년에 죽은 인물로 주로 영종, 헌종 때 높은 벼슬을 한 인물임에 반하여, <쌍천기봉>에서는 연왕이 임금(성조)에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나오며 영종이 토목의 변(1449년)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다. 둘째 문연각에 입직하는 시기가 <明史>에서는 1457년(50세) 반해 <쌍천기봉>에서는 1405년(23세)에 이루어진다

4. 소설 속에 제시된 창작방법

이 장에서는 <쌍천기봉>의 末尾에 기록된 <쌍천기봉>의 창작과정과 방법을 검토한다. 소설 末尾에 기록된 소설의 작자와 창작층에 대한 논의는 김진세⁴¹⁾, 이상택⁴²⁾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논의에서는 이 末尾의 기록은 허구이며, 소설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법임이 지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전제로 하여, 末尾의 기록에서 <쌍천기봉>의 창작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쌍천기봉> 전 작품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우선 <쌍천기봉>의 末尾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잇되 승상 막하괴실 뉴문한이 니부일괴를 맞타 흐니 외스를 모로 일 이 업고 니당괴실 옥한은 뉴문한의 얼미라 냥인이 니부니의 일을 심심세 세히 아는 고로 가만이 괴이한 수격을 벗겨 다쁜 곳의 감초와 후인이 알게 하고즈 후터 승상 등과 문정공 등이 이런 일을 도히 아니 녀이논 고로 그 상시의논 괴록지 못하고 뉴문한이 인하여 죽은 후 니부일괴 벗긴 거서 뉴문한의 주손의게 전하여 내려가더니 능경황태 적 설최의 칠티손 설문이 급 대학야 한님혹시 되어 소괴를 닷글신 승상과 문정공의 전후 대공과 통성이 고금에 업스니 설문이 스스로 선조의 협원을 생각학야 붓술 가지고 소괴를 썩며 만일 혼 말이나 니공 간섭한 곳이 이시면 다 썩혀 바리니 뉴문한의 늑티손 뉴형이 또한 한님슈찬으로 혼가지로 잇더니 설문의 거동을 고이히 녀여 굴오티 공이 국가 소괴를 지으며 니공고쁜 현상을 썩히는다 설문 알 니공의 전후 처서 너모 고금에 드물므로 도리혀 허탄키 곱가오니 후인이

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쌍천기봉>의 니현은 <명사>의 니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고, 두번째는 <쌍천기봉>의 니현은 <명사>의 니현을 염두에 두되 작가에 의해서 그 실제 삶이 재구성되어 소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고전소설에서 엄승이나 왕안석과 같은 중국의 실존 인물들이 차용되는 방법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명확해지리라 보고,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41) 김진세, 앞의 논문.

_____, 낙선재본소설의 국적문제,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_____, 낙선재본 소설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14, 정신문화연구원, 1991.

42) 이상택, 조선조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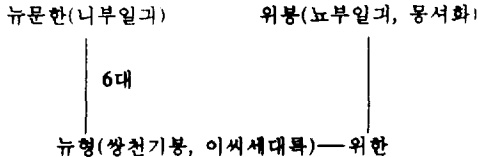
_____, 명주보월병, 완암김진세선생회갑기념논문집, 집문당, 1990.

밋지 아니면 넉티 경대 위덕이 또 허식 될 거신고로 썩히노라 뉴형이 설문의 용심을 무상이 녀여 힘써 일쭉리니 설문이 노후야 진괴정 등을 축후야 뉴형을 양취 원찬후니 뉴한님이 분을 먹음어 양취 니르러 모옥을 짓고 일월을 보이며 심하의 니승상 명망이 후세에 빠디를 혼후야 그 선조 뉴문한의 썩친 니부 일괴를 녀여 그 가온티 괴이한 말만 썩혀 전을 지으니 문정공 몽창이 소시로 더브러 쌍천의 괴특히 합후를 인후야 슈계 쌍천기봉이라 호고 노시랑 부인 빙성을 혼 던에 녀허 닐오려 후더니(밑줄은 인용자)

나) 본토인 위한은 노시랑 문기 위봉의 주손이라 위봉이 일죽 노시랑은 해를 닐어 그집 일괴를 맛타물을 일이 업고 또 북취백 장주 몽석의 들지 부인 노시는 태상의 아오로 허다 사연이 잇는 고로 드티여 전을 지어 제명 후티 몽서화라 후야 여러권 책을 닐워 두엇더니 위한이 뉴한님과 스키여 단니더니 쌍천기 닐오물 보고 곱오티 범물이 여러 사람의 말을 드르미 번잡후니 니게 선좌 썩치신 이리이러한 책이 이시니 노시랑 부인 말을 썩히미 가타하고 몽서화를 가져와 보니 뉴한님이 그 테를 탄복하고 곱오티 문정공 제조와 하람공 제작의 수덕이 더 괴특후되 이 전이 너무 지리후니 별전을 닐워 후세에 전후리라 호고 니씨세대록을 지어 흥문 등 형대와 성문의 수형대의 수연과 경문의 본부모 좃던 일이며 허다 괴괴한 수적이 세대록의 다 주시 잇느니라 뉴 위 이인이 세가지 책을 모든 티 전후니 보느니 비록 니승상 위덕을 드더시나 이티도록 후물 모르더니 바야호로 괴특이 녀여 닛토와 벗겨 집안 보기를 숨으니라 지외외국의가지 흘너가니라 이 전이 굿쳐져 무미후미 세대록에 잇는 연고니 후인이 세대록까지 누리 보와 괴괴한 사연을 주시 알나⁶⁾(밑줄은 인용자)

위의 기록은 <쌍천기봉>을 짓게된 경위와 <니씨세대록>을 짓게된 경위로 양분된다. 먼저 <쌍천기봉>을 짓게된 경위를 살펴보자. <쌍천기봉>의 작가는 뉴형으로 그는 니부의 일괴를 말아 쓰던 뉴문한의 육대손

43) 쌍천기봉 권지심판. 위의 기록을 통해 인물들과 저술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다. 뉴형은 설취-니몽현의 아내 장씨를 흠모하여 여러가지 음모를 꾸며 장씨를 취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인물⁴⁴⁾의 칠대손인 설문이 사기를 기록하면서 니부의 일을 적지 않음에 분개하여 따지다가 양취로 귀양을 간다. 그곳에서 그는 니씨 가문의 일을 쓰기로 하고 6대조 뉴문한에 의해 지어진 <니부일기>에서 니몽창과 소씨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특정한 부분을 발췌하여 <쌍천기봉>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니씨세대록>을 짓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뉴형은 위한이란 인물을 친구로 사귀게 되는데, 위한은 노시랑-니관성의 막내딸인 니빙성의 남편으로 이름은 노익이다⁴⁵⁾. -집에서 <노부일기>를 쓰던 위봉의 주손이다. 위봉은 '노부일기'와 함께 이연성(북취백)의 장자 니몽석의 둘째 부인이 된 노씨에 대한 행적을 적은 <몽서화>⁴⁶⁾라는 작품을 지었고, 이 두가지 기록은 그대로 위한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날 뉴형이 <쌍천기봉>을 위한에게 보이니 위한이 니빙성의 노부에서의 삶이 좀더 자세하게 적힌 <몽서화>라는 작품을 가져와 뉴형에게 보인다. 뉴형이 <몽서화>를 읽고 나서 그 속에 니관성 3형제 중에서 니연성과 그의 아들 니몽석에 대한 기록만이 나오고, 니몽현(하람공)과 니몽창(문명공)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니부일기>에서 니몽현과 니몽창의 후손들의 삶을 발췌하여 적은 것이 바로 <니씨세대록>이다.

이러한 언급이 사실이 아님은 선행 연구에서 누차 강조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이러한 언급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속에 당시 고전소설의 관습적인 소설 창작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가에 중점을 둔다. 위의 인용에 의거하자면, <쌍천기봉>과 <니씨세대록>은 뉴형에 의해 완전히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6대조 뉴문한이 쓴 <니부일기>에서 뉴문한이 원하는 부분을 취합해서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니부일기>의 존재는 <쌍천기봉> 작품 내에서도 발견된다.

44) 쌍천기봉 권지칠.

45) 노익과 빙성의 갈등에 대해서는 쌍천기봉 권지십사와 십오에 걸쳐 자세히 형상화되어 있다.

46) 따라서 <몽서화>에는 니부의 사람들 중에서 니연성과 그의 아들인 몽석 형제에 대한 기록만이 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이 뉴문한이 다시 <니씨세대록>을 짓게 하는 이유가 된다.

(계양공주가) 쇼옥을 불러 여차여차하라 하니 쇼옥이 슈명하여 가마니 상부의 가 존당괴실 옥환을 보고 날오티 옥취 보실 것이시니 금년 삼월일괴 혼 거술 보와지라 하시더라 옥환이 니여주거늘………츠시 황혼이라 등촉이 늦고더라 쇼옥이 드러가 일괴를 밧드러 드리니 공쥐 바다 일일이 보니 승상의 상쇠며 태후 비답이며 일개 당시 맛김과 승상을 옥의 가도며 부익 조괴를 향하여 혼 말을 쇼부드려 와 전하를 일일이 빼스니⁴⁷⁾

이부분은 니몽현의 처 계양공주가 <니부일괴>를 보고, 니몽현의 부마 간택 문제로 니몽현과 정혼한 장씨가 결혼이 취소된 사실과 니관성이 니몽현의 부마간택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사연 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末尾에 뉴문한과 함께 일괴를 적은 인물인 옥환이 등장하여 공주의 시비 쇼옥에게 일괴를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 옥환과 <니부일괴>의 존재가 단순히 末尾에 첨부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니부일괴>와 관련된 세가지 층위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쌍천기봉>의 작중인물인 공주가 본 옥환이 쓴 <니부일괴>
둘째, <니부일괴>에서 발췌하여 재창작된 <쌍천기봉>과 <니씨세대록>
셋째, <쌍천기봉> <니씨세대록>의 모태가 되는 뉴문한과 옥환에 의해 지어진 <니부일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중인물인 계양공주는 <니부일괴>를 볼 수 있지만 <쌍천기봉>의 독자들은 <니부일괴>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위의 세 층위는 닫힌 구조로 하나의 소설 작품 속에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닫힌 구조는 뉴문한을 비롯해서 末尾에 거론된 책의 지은 이들이 다시 그들이 지은 바로 그 소설 속의 인물이거나 그 인물과의 혈연관계 속에서 설정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뉴문한과 옥환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뇨부일괴>와 <몽서화>를 쓴 위봉에게서도 확인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1)한 가문의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2)그 일기를 쓴 사람(혹은 그의 후손)이 3)그 일기에서 새롭게 발췌하여 별전(즉 소설)을 재창작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두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니부일괴>로

47) 쌍천기봉 권지육.

지칭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쌍천기봉>이 <니부 일기>의 발췌, 편집이라면 편집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텍스트 자체의 모순점은 발견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이다. 다시말해 이 末尾는 허구이지만 <쌍천기봉>의 창작자는 이 허구에 근거하여 소설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점이다. 우선 소설 자체가 갖는 불완전한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후뒤에 경문이 산동어스로 가 도시 추즈온 수격이 이시니 하회에 잇느니라⁴⁸⁾
- 나) 당부인도 친정에 도라가 부모를 만나 즐기나 삼녀 필쥬소계 오세러니 오던 길히 일코 큰 우환을 습앗더라 이 수격이 본전에 주시 이시니 이 전에는 기록지 아니타
- 다) 현명은 굵은 경문이니 이 수연이 다 세뒤록의 잇느니라

가)는 하회에 경문이 산동어스로 가서 만나는 일을 적겠다고 했으나 <쌍천기봉>에서 경문은 아직 자신이 니몽창의 아들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의해 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쌍천기봉>에서는 찾을 수 없다. 나)와 다)는 모두 <쌍천기봉>에는 없는 내용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라고 하고 있다. 그곳은 나)에서는 ‘본전’이며 다)에서는 <니씨세대록>이다. 그러나, 나)에서 가리키는 ‘본전’이 <니씨세대록>인 것은 아니다. 말미의 기록에서도 ‘별전을 닐워 후세에 전하리라 하고 니시세대록을’ 지은 것으로 나오므로 <니씨세대록>도 ‘별전’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나)에서 지칭하는 ‘본전’⁴⁹⁾은 무엇인가? 그것은 <쌍천기봉>과 <니

48) 쌍천기봉 권지십사.

49) ‘本傳’과 ‘別傳’의 성격에 대해서 이수봉은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꼭 本傳이 있어야만 別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굳이 본전이라고 한다면 <현씨사대록>이 본전이 되고 그 본전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연작되는 이야기책을 옛사람들은 題名은 다르게 붙이면서도 이를 별전이라 했다” 이수봉의 입장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씨사대록>이라는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을 모두 포괄하는 작품을 본전으로 설정해놓고,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의 각 작품을 별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현씨사대록>이란 이수봉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추상화된 이름일 뿐이다. 따

씨세대록>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末尾에 제기된 '니부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이 말미의 기록이 허구라고 밝혔듯이, <쌍천기봉> 연작의 모태가 되는 <니부일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쌍천기봉>과 <니씨세대록>의 모태로 기록된 '니부일기'의 존재와 <니부일기>에서 발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이는 위의 흔적들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우선, <니부일기>와 같이 완벽하게 니씨 가문의 이야기를 적은 총체적인 책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앞서 살폈듯이 이 <니부일기>는 <쌍천기봉>이라는 닫힌 텍스트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오직 그 내부에서만 정합성을 가질 뿐이다. 둘째, <니부일기>에서 <쌍천기봉>과 <니씨세대록>이 발췌 창작되었다는 말미의 주장은 마지막에 단순히 첨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쌍천기봉>은 이 말미의 기록대로, 완전한 텍스트에서 떨어져 나와 편집된 불완전한 텍스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셋째, 따라서 <니부일기>의 존재는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쌍천기봉>의 내용과 형식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쌍천기봉>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살핀대로 <삼국지연의>로 대표되는 연의류 소설과 <明史>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역사기록, 그리고 <쌍천기봉>이 씌어지기까지 창작되어온 고전소설 작품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쌍천기봉>에서 거론된 <니부일기>라는 개념은 <쌍천기봉>의 작가가 <쌍천기봉>을 쓰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선행 텍스트 모두를 추상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크며, 좀더 좁게 보자면 역사(중국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허구적-또는 현실적-인물을 형상화하는 소설의 결합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위해, 당대에 관습적으로 참조되고 차용되던 선행 텍스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쌍천기봉>과 <니씨세대록>이 <니부일기>에서 발췌되어 재구성되었다는 의식은, <니부일기>를 특정한 일군의 선행 텍스트로 파악한다

라서, 이수봉이 생각한 <현씨사대록>이라는 형태도 <쌍천기봉>의 말미에 나오는 <니부일기>라는 형태와 이름만 다를 뿐 추상적이며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소설의 작가들이 자신들을 최초로 작품을 만들어 세상에 내어 놓는 창조자로서의 작가보다는 선행 텍스트들을 차용하고 그 텍스트들의 얽힘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사자⁵⁰⁾(記寫者)scriptor로 자신들을 위치짓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이는 익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고전소설의 작가의 위치가 저자의 이름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는 근대 소설의 그것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5. 창작방법을 통해 본 <쌍천기봉>의 소설사적 의의

지금까지 고전 소설의 창작층은 주로 작품 구조와 세계관 검토를 통해 추론해왔다. 이 글에서는 <쌍천기봉>의 창작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쌍천기봉>의 창작자가 연의류소설을 탐독하고 明史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만큼의 소양을 갖춘 인물임을 밝혔다. <쌍천기봉>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 고전 소설의 창작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한강현전> 등의 공통점은 모두 명나라 초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창작된 <쌍천기봉>, <이씨세대록>, <낙천등운>, <성현공숙열기>, <삼생기연>, <삼강명행록> 등의 작품 역시 앞서의 작품들과 비슷한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빌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50) Roland Barthes는 저자author와 기사자scriptor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The Author is thought to nourish the book, which is to say that he exists before it, thinks, suffers, lives for it, is in the same relation of antecedence to his work as a father to his child. In complet contrast, the scriptor is born simultaneously with the text.....We know now that a text is not a line of words releasing a single 'theological' meaning (the 'message' of the Author-God) but a multi-dimensional space in which a variety of writings, none of them original, blend and clash."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 *Modern Criticism and Theory*, Longman, 1988, p. 170.

역사적 배경과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정통 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 <낙천동운>에서는 모두 정치적 적대자로 엄승이 그려지고 있으며, <쌍천기봉>과 <성현공숙열기>에서는 연왕과 제태, 황자징의 정치적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들의 배경 설정은 군담 소설들에서처럼 형식적으로 차용된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특정 역사적 시기와 그 속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을 염두에 둔 결과임이 확실하다.

지금까지 연의소설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서의 군담의 대비나, 연의 소설에서 등장한 인물이 군담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여부 등에만 초점이 놓여졌다. 그러나 <쌍천기봉>을 통해 확인되듯이, 연의소설은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형상화하는데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형상화 과정에서 연의 소설의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연의소설과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갖는 유사성이 소설 속에서 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쌍천기봉>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영향관계가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쌍천기봉>의 처음과 끝에 밝혀놓은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지워버리고 <쌍천기봉>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쌍천기봉>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지닌 채 소설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쌍천기봉>은 두가지 방식으로 독자가 가능한데, 첫째는 소설 속의 인물들을 <삼국지연의>의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고, 둘째는 단순히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씨 가문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다. 전자를 거쳐 후자에 이르는 것은 곧 연의소설이 독자적으로 고전소설에 편입되는 한 양상이라고 하겠는데, <쌍천기봉>은 독특하게도 이 두가지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

<쌍천기봉>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문제는 ‘가문소설’과 ‘영웅소설’, ‘군담소설’로 분류되던 작품군들의 관계이다. 먼저 이 유형 분류에서는 ‘영웅소설’의 범주 설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고전 소설은 장, 단편을 불문하고, 판소리계 소설을 제외한 상당 수의 고전 소설이 이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편 영웅소설의 경우는 제외하고, ‘군담소설’로 분류되던 비교

적 분량이 짧은 소설들만을 ‘군담소설’이라는 범주로 묶어 ‘가문소설’과의 상관관계를 논하도록 하겠다⁵¹⁾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떤 작품군이 먼저 나왔는가의 문제와 창작층이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가 얽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1)‘몰락양반에 의해 창작된 군담소설로 대표되는 단편소설’→‘상층 사대부에 의해 창작된 가문소설로 대표되는 장편소설’의 입장과 2)‘상층 사대부에 의해 창작된 가문소설로 대표되는 장편소설’→‘몰락 양반에 의해 창작된 군담소설로 대표되는 단편소설’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가문소설’을 이전 소설들의 종합으로 파악하면서 군담소설이 나오고 왕성하게 창작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문소설’이 출현했다는 주장이며⁵²⁾, 후자는 최근 들어 대두되는 시각으로 ‘가문소설’이 먼저 창작된 후, 이 속에 내포되어 있던 ‘군담’이 부각되면서 ‘군담소설’이 창작되었다는 주장이다⁵³⁾.

<쌍천기봉>을 통해 확인된 고전소설의 창작방법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단편에서 장편이 나왔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2)의 입장이 더 타당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史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의소설을 탐독하던 상층 사대부 계층에 의해 소설이 먼저 창작되고, 이것이 후에 중국을 단지 형식적으로 가탁하는 일군의 소설로 등장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사대부 계층에서 중국의 史書가 탐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⁵⁴⁾, 연의류 소설이 이른 시기부터 유행된 것도 여러

51) ‘군담소설’과 ‘영웅소설’의 범주 설정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이강엽, 군담 소설 연구 방법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27-51.과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p. 4-10 참조.

52) 이 입장에서 있는 논저는 다음과 같다.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 지식산업사, 1989, pp. 483-492.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pp. 208-214.

53) 이 입장에서 있는 논저는 다음과 같다.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1988.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호, 1991.

54) 오금성, 朝鮮學者之明史研究, 韓中關係國際研討會論文集, 1983, 臺北.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중국의 연의소설과 장편 고전 소설들이 함께 섞여서 언급된다는 사실이다.⁵⁶⁾ 이것은 연의소설과 장편 고전 소설이, 동일한 계층에서 함께 향유되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이에 비해 ‘심지어 속향전 풍운전의 뉘 가함의 천한 말과 하류의 나즌 글시로 판본에 기간⁵⁷⁾야 시상에 킁킁하니⁵⁸⁾’에서 보듯이 <장풍운전>과 같은 ‘군담소설’의 독자층은 연의소설이나 가문소설의 독자층과는 명백히 구분되었다.

‘군담소설’에서 소설의 첫머리에 ‘뉘명 성화 년간이라’(〈이대봉전〉) ‘뉘명국 영종황제 직위 초의’(〈유충렬전〉)라는 언급은 관습적인 언급일 뿐이며, 그 언급에 따라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지는 않는다. 즉 ‘군담소설’은 중국의 역사를 충실히 따르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상상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며, 그 상상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영향으로부터 설명되어진다. 그러므로, ‘군담소설’의 연구자들은 소설의 전반부에 명시된 시대적 배경을 구조 분석에서 제외시켜 왔다⁵⁷⁾. 이는 소설에 명시된 시대적 배경이 소설의 실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그 이전의 관습을 빌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적 관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순히 중국을 빌어왔을 뿐이라는 주장과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따르면서 창작되

이성규, 조선후기 사대부의 <史記> 이해, 진단학보 74, 1992.

55)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은양 정씨 필사본 <육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육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 1990.에서 밝힌 바대로 <개벽연의>, <타죽연의>, <초한연의>, <동한연의>, <당진연의>, <남송연의>, <북송연의>, <오대묘사연의>, <남계연의> 등의 연의소설들이 <쇼현성록>, <뉴씨삼대록>, <남경고> 등의 소설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홍희복, <第一奇譚>의 첫머리에도 연의소설들과 장편소설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조선조에 유입된 중국 연의소설의 개괄은, 宋鑣韓, 조선조 연의소설의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3, pp. 5-9, 참조.

56) 洪義福, <第一奇譚> 권1.

5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pp. 19-68 참조.

던 것이 후대에 오면서 관습적인 틀로 굳어졌다는 답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쌍천기봉>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관습이 처음에는 중국의 실제 지명, 인명, 역사적 사건을 사용하던 것이 후대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관용어구로 쓰였다는 입장을 강화했다. 즉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성현공숙열기>, <쌍천기봉> 등의 작품에서 언급되는 중국의 지명, 인명, 사건은 완전한 허구가 아니며, 이 소설들의 창작자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상세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서, 연의적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관계 역시 어떤 작품이 선행하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왜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인물을 소설 속에서 취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가문소설’에서 ‘군담소설’로 소설사적 흐름이 단선적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明의 역사와 연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일군의 소설은 17세기 말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 구활자본 소설—이룰테면 <삼생기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리고 또한 방각본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군담소설’ 역시 18세기 중엽의 <소대성전>, <장풍운전>에서부터 시작하여 구활자본 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 두 소설군은 소설의 내용이나 세계관의 차별성 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선행 텍스트들의 질과 양도 상이했던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쌍천기봉>의 창작방법을 검토하여 그 창작층을 추론하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가문소설’을 창작하에 적용되던 문학적 관습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이 글에서는 <쌍천기봉>에 드러난 明史와 연의류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여, <쌍천기봉>의 창작자가 중국 역사에 해박하고 연의소설을 탐독한 상층 사대부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창작방법을 취하는 ‘가문소설’의 창작층은 중국의 역사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군담소설’

의 창작층과는 구분된다.

앞으로 남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쌍천기봉>의 연작인 <이씨 세대록>을 검토하여 두 작품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17세기 전후에 존재하였던 작품들을 검토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당시 소설의 존재 양태를 창작방법과 세계관 검토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셋째는 明의 成祖와 世宗 년간을 소설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문소설'을 검토하여 그 속에 드러난 각 가문의 정치의식과 운명을 살피는 것이다.